



9장

양심을 온전하게 함

제 9 장

양심을 온전하게 함

우리는 전 장에서 “사람이 새 언약의 성소” 라는 아름다운 명제를 얻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9장에서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조하고,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죄의 도말 사업을 심도 있게 설명해 나간다. 9장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성소를 세우셨던 목적과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양심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폐지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때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본 장의 연구를 통해 “양심의 온전” 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의 발견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이며, 이 위대한 길을 닦기 위해 우리의 어린양이 피 흘리시고, 온 하늘이 희생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중보 사업을 돕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 A. 히 9:1~10, 지성소의 길이 닫혀 있어 양심을 온전하게 못함
- B. 히 9:11~14, 지성소의 길을 여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
- C. 히 9:15~22, 첫 언약의 피로 지상의 성소를 정결하게 함
- D. 히 9:23~27, 더 좋은 제물은 지성소에서 죄를 없애고 죄와 상관없게 하심

A. 지성소의 길이 닫혀 있어 양심을 온전하게 못함(9:1~10)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의 예법들은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성취될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

[세상에 속한 성소의 기능]

- ① 죄인이 중보자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 ② 대속죄일 -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 ③ 대속죄일 - 최후의 심판의 때에 사단(아사셀)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을 보여주었다.

* “성소” (헬, 토 테 하기온, to te hagian)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유일하게 단수로 사용되었다.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문맥으로 읽어야 무난하다.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의 기물들]

- ① 등대 - 가지가 7개 있는 촛대(헬, 메노라, menarab: 출 25:31-40; 37:17-24)
 - ② 떡상 -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상(출 25:23-30; 37:10-16)
 - ③ 진설병 - 진열용 빵(“shew bread”, NLT, KJV),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 * 이곳의 “성소” (헬, 하기아, hagia)는 복수로 쓰였지만 성소 첫째 칸을 의미한다.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의 기물들]

- ① 금향로 - 헬라어 ‘θυμιατεριον(thumiaterion)은 ‘향단’ 이나 ‘향로’를 의미한다. 본래 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향로’로 보는 것이 옳다. 바울은 향로를 지성소에 놓음으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봉사가 가져오는 마음의 정결을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절박하게 느껴진다.
- ② 언약궤 -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 담겼다는 뜻에서 언약궤라고 한다(출 25:1-22; 37:1-9)
- ③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 -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하신 것과 돌보심을 기념(출 16:32-35)했다. “그 안에”는 ‘궤 안’이라기보다는 ‘지성소

안' 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④ 아론의 싹 난 지팡이 -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옹호를 표징(민 17:1~11)한다.
- ⑤ 언약의 비석들 -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출 34:27~29).
- ⑥ 속죄소 - '시은좌' (mercy seat)라고 부르며, 죄의 도말(레 16:15~17)과 화목(롬 3:25)을 상징한다.
- ⑦ 영광의 그룹들 -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는 천사들로 미래의 구원 받을 자들을 상징(출 25:12-22)한다.
- * "지성소" (헬, 하기아 하기온, hagia hagion) - 복수로서 '지성소' (Most Holy Place)를 의미한다.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성소의 경험]

- ① 백성들에게 성결한 생애를 경험하게 했다. 매일 향을 드리고 등대의 심지를 손질(출 27:20-21; 30:7-8) 함으로 마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임재를 항상 느껴야 하였다.
- ②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발랐다(레 4:5-7). 마음의 죄가 성소로 옮겨짐으로 인해 성소는 죄의 기록으로 더럽혀졌지만 참 회자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었다.

③ 죄를 용서받는 방법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희생 제물을 이끌고 성소로 나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죄인이 단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속죄소 앞에 나아오기 전에 하나

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였다.

레위기 4~5장에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레 4:14, 23, 28; 5:4)이라는 유사한 문맥이 4번 나온다. 그곳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깨닫다” (히, 아다)는 어의는 ‘알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 범한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느끼는 자가 희생제물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와 진실하게 죄를 자복할 때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레위기서의 속죄제들은 교훈으로 충만하다.]

- 4장 - 무지로 금지된 명령(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네 계층의 속죄제
- 5장 - 부당한 묵비권의 행사, 접촉으로 인한 부정, 부지중에 맹세한 죄, 성물에 대한 죄
- 6장 -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죄, 거짓 맹세한 죄

하나님은 무지하여 지은 죄를 ‘죄 없음’ 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 5:17),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킹제임스 성경).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는?]

다윗은 용서 받지 못할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저질렀지만 자신의 고의적인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 놓고 철저한 회개를 했고, 마음의 정결을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구약시대에 간음과 살인은 돌에 맞아 죽을죄에 해당하는 큰 죄였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며 도망칠 때 사울 집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모든 수치와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허물에서 찾았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심히 갈망하였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삼하 16: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에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삼하 16:9~12).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구약의 대속죄일의 “속죄의 날” (yom hakkippurim)이 복수로 쓰여 위대함이 강조됨]¹¹⁹⁾

“칠월 십일은 속죄(복수 형태)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복수 형태)일이 됨

119) 이영수, 구속의 드라마, 제12장 “대속죄일 속죄의 위대함”(pp. 271-272)을 참고하라.

이니라” (레 23:27~28)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욘 하킵푸림’ 으로 문자적으로는 ‘속죄의 날’ 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사용된 ‘욘’ (yom)은 날을 뜻하고, ‘킵푸림’ (kippurim)은 ‘속죄들’ 을 뜻한다. 히브리어에서 때때로 복수형을 취할 때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강조한다. 대속죄일은 ‘절대적인 날’ 로 ‘위대한 날’ 로 지켜져야 하였다. 복수 형태를 사용함으로 의미가 강조된 실례들로는 ‘엘로힘’ (하나님), ‘샤마임(하늘)’, ‘코데쉬’ (성소는 코데쉬, 지성소는 코데쉬)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죄 용서와 죄의 도말을 받는 것이다.

대속죄일의 속죄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또 다른 이유는 이날의 속죄가 ‘지성소’ 와 ‘회막’ 과 ‘단’ 에서 공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레 16:33).

또한 이 날에는 성소의 향단 뿔에도 “속죄” 의 피가 뿌려짐으로 향단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이곳의 “속죄” 또한 ‘일반명사 복수형’ 으로 사용되어 그 위대함과 영원함이 강조되었다. “아론이 일 년 일 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¹²⁰⁾(히, 킵푸림, 복수 형태)제의 피로 일 년 일 차씩 대대로 속죄 할 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10).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 -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 (9:25)는 길이다. 이 길에 있을 때만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120) KJV에 "atonements"로 사용되었다.

첫 장막 아래서는 오직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지성소의 무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소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었다. 첫째,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KJV; ASV; YLT; 현대인의 성경), 둘째,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라’ (NIV; NASV; RSV; NRSV; NLT)는 뜻으로 번역되었다.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9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보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 (make perfect the conscience)이었다. 레위 제사장직은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7:11). 또한 율법 자체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7:19). 그러나 새로운 제사장직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9:14, clear the conscience).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 소제와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다(출 29:40-41; 레 2:1-15, 23:13, 18, 37; 민 6:15).

여러 가지 씻는 것 - 성소 봉사 전에 손발을 씻는 것(출 29:4; 30:17~21; 40:32), 위생과 개인적인 청결(레 11:25; 15:4-27; 민

19:7-13) 등이 포함 되었다.

육체의 예법 -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 먹고 마시는 소제와 전제들,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영구적으로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다만 일시적이었기에 육체의 예법에 비유하였다.

B. 지성소의 길을 여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9:11~14)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예법들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할 때 성취될 일이었다. 장래 좋은 일은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 하늘 성소를 일컫는 말이다. 땅에 있는 것은 기능적 축소판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소는 참 성소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모형이었다.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단 7:10), 그 성전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 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¹²¹⁾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는 죄인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 예수님께서서는 최종적인 속죄제물이 되셨다. 속죄를 위해 제공된 완전한 제물이셨다. 이제는 그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 그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 (딤후 4:10)기 때문이다.

* “성소” (헬, 타 하기아, ta hagia) -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말한다.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염소와 송아지(히, 모스코스: 어린 황소)의 피’ 는 대속죄일에 정결을 위해 드러졌다(레 16:5-9, 11-16).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 리는 일은 사람이 주검에 접촉하였을 경우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워 재와 물에 섞어 뿌리는 정결의식이었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 의식으로 죄의 정결을 상징하였다(민 19:1-13).

이러한 정결 의식들은 일시적인 정결만 제공하였다. 본문은 일시적인 행위도 효과가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얼마나 더 영구적이고 온전한 정결을 가져오겠느냐는 것이다.

121)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75.

중요한 한 가지!

염소와 황소(수송아지)의 피가 뿌려지는 대속죄일과,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거나 부정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아주 절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던 의식을 상기 시키고 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 이라” (레 23:29)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 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제 있음이니라” (민 19:13)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는 ‘더욱’ 이라는 뜻이다. 대속죄일의 정결과 부정을 입은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일시적이거나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사람을 정결하게 하겠는가? 만일 구약 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거부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다. 하물며 현재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정결은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벧전 1:19)라고 했다. 이 피를 적용시키면 우리의 품성이 “흠 없고 점 없” 는 품성이 된다.

“영원하신 성령” (헬, 프뉴마토스) - 정관사가 없으므로 개역성경(RV)

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으로 읽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옳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뜻이 된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죽은”(헬, 네 크로스)은 ‘시체’(헬, 네 키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시체는 접촉하는 모든 것을 더럽힌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깨끗하게 하다’(헬, 카타리조)는 ‘정결하게 하다’, (의식적으로) ‘깨끗함을 선언하다’라는 뜻이다. 옛 짐승의 피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의 양심은 죽은 행실로부터 온전히, 영원히 정결하게 된다.

“부정한 자 중에 머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일 고대에 부정한 자들이 피 뿌림에 의해 정결하게 되는 일이 필요했다면,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은 매일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¹²²⁾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 자신을 낮추고 빛과 증거를 더 이상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내 죄악이 나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라. 오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념책에서 내 죄들을 도말해 주십시오.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분께는 용서가 있으며, 그대는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다.”¹²³⁾

122) 교회 증언(Ellen G. White, Testmonies for the Church, Vol.. 4, p. 123.

123)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Testimonies to Ministers and Gospel Workers), p. 97-98.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마지막 시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정결하게 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C. 첫 언약의 피로 지상의 성소를 정결하게 함(9:15~22)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9:14),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9:9)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보자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 - 양심이 깨끗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새 언약의 중보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자들이다.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 (헬, 디아테케)은 ‘유언’ 과도 같은 말이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

은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인간 편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행해야 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야 하였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이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로써 비준되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 (출 24:8)렸다. 그리고 피의 반은 “단에 뿌리고” (6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 (7절)하였다 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염소의 피를 사용했다는 말과 피를 책에 뿌렸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피는 언약의 피였다.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 “섬기는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 (킹 제임스, 9:21) 즉 성소와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과 그릇에 피를 뿌린 것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그로부터 9개월 뒤에 헌당된 성전 봉헌 때에 피를 장막과

모든 그릇들에 뿌린 것과 대속죄일에 뿌려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언약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성전 봉헌과 대속죄일 의식까지 이스라엘과 체결된 언약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와 최종적인 죄의 정결이 언약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모든 기명들을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를 의미하였다. 어떤 것들은 불이나 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민 31:22-24). 또 어떤 것들은 화제의 곡물 가루로 정결하게 되었다(레 5:11-13). 그러나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D. 더 좋은 제물은 지성소에서 죄를 없애고 죄와 상관없게 하심(9:23~27)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 성소 정결의 필요성을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상의 ‘장막’ 과 “첨기는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 (킹제임스, 9:21)이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 즉 **하늘 자체**는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왜 하늘 성소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가?]

하늘에 있는 성소도 지상 성소와 병행되는 같은 방법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지상의 성소는 죄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오염 되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향단 뿔에 발랐다. 이것은 성소에 죄가 전가된 것을 의미하였다.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그 제육을 먹고 들어감으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여러 방법으로 드러진 속죄제는 그 죄를 성소로 전가하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하늘 성소도 지상 성소와 병행되는 같은 방법인 죄의 기록으로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그 “책들에 기록된” (계 20:12) 것들을 제거함으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매일의 봉사로 더럽혀진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봉사하여야 한다. 하늘 성소 정결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하였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참 하늘은 ‘하늘 자체(heaven itself)로, 그림자인 지상성소의 반대 개념인 원형적인 하늘을 의미한다. “성소와 참 장막” (8:2)이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간 까닭은 죄로 오염된 하늘 성소를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제 ... 나타나” 신 것이다. 본문의 “이제” (헬, 눈, now)는 계속적 현존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신 곳은 “하나님 면전” (킹제임스 성경)이다. 땅 위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 (레 16:13)하기 위해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 “둘째 아담으로서, 그는 첫째 아담이 겪은 것보다 무한히 혹독한 시험을 땅에서 겪으셨다. 이제 그는 사람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시느냐의 여하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다. 만일 그가 가납되면, 사람도 가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신다.”¹²⁴⁾

* “성소” (헬, 하기아, *hagia*, 복수 형태) - 성소와 지성소 두 곳을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해마다 …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봉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성소(헬, 타 하기아, *ta hagia*)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성소가 복수로 사용되었음과 묵맥을 보아 지성소라고 읽는 것이 분명하다.

다른 것의 피로써 …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 옛 언약에서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성도를 단번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족한 것이다.

124) 남대극 외 12인 역, M. L. 앤드리어슨, 히브리서註釋(서울: 삼육대학 대학원, 1982), p. 361.

자주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는 이유?

레위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반복적인 제사를(7:27) 드릴 필요가 없으셨다. 또한 지상 속죄 제물의 효력은 일시적이지만 온전한 희생 제물이셨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9:12, 26)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자주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신다(9:14, 28; 10:2; 10:10)는 사실이다.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는 그리스도가 지성소 봉사로써 죄를 폐지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 (9:24)나신 때이다. 책의 서두에 언급된 “이 모든 날 마지막 막” (1:2)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때를 의미했지만 여기의 “세상 끝” 은 연속되어 온 ‘시대의 끝’ , 세상 마지막 때인 ‘세상 끝’ (마 13:40; 13:49; 24:3)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실 때인 듯하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의 “없게” (헬, 아테테시스)는 ‘폐지하다’ , ‘무효화하다’ 라는 의미이다.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을 나타낸 단어 헬라어 ‘크리시스’ 는 즉결 심판이 아니며 즉결 심판 전에 죄를 조사하는 행위나 절차를 말한다. 계시록 14장 7절의 “심판” 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아마도 조사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

어진다.

* 최후의 형벌이 주어지는 심판은 '즉결심판' (헬, 크리마)이다. 이것은 사법적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정 선고를 말한다.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조사심판의 결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레 23:29-30)

② 대속죄일의 심판의 결과로 죄의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돌려지고 사단은 영원히 끊어져 없어진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 16:21-22)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담당하시려고 - 그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 53:11).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 예수께서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시고 대속죄일 기간을 정하신 까닭은 당신의 친 백성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경험에 들어 갈 수 있다. 반면에 죄를 고집하거나 죄를 버리는데 소홀하여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10:29)는 구원하실 수 없으시다.

대속죄일의 속죄 사업이 마치면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을 때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 죄를 떠난 자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가 되자!

